

오늘은 2018년 10월 두번째 주일입니다.

가을 날씨가 완연합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4일 언약교회 이모조모입니다.

1)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혹은 좀 더 자세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회자나 혹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번거로우실수도 있겠지만, '방문자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시간에 갓난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득불 아이들이 조금씩 소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점이 익숙치 않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이 뒤쪽보다는 약간이나마 좀 더 조용합니다.

1. 오늘 결석한 지체들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교제하며 지냅시다.

전계현, 천명재, 김성현, 이은숙, 함영훈, 심효진, 명준재, 박의준, 김미라, 장주현, 한수빈

오늘 장년 80명, 중고등부 4명, 초등부 11명, 유년부 7명, 유치부 10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2. 10월은 <한 가정>이 <한 가정> 전도하는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한 가정씩 불신가정을 전도하거나

혹은 교회를 정하지 못한 가정들에게 교회를 소개합시다.

3. 이번 화요일(10월 16일)은 하루 아침예배를 쉽니다.

4. 목사님은 이번 화요일 남서울 노회에 참석합니다(장소: 강서구 대성교회)

5. 어린 아이들이 예배시간에 울거나 이야기를 하면 옆사람에게 많이 방해가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소리를 내면 방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피아노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윤 자매가 기증한 피아노를 개척(99년)때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작은 그랜드 피아노(160cm)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7. 교회 계좌로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206 001 04 148 682 언약교회

우리은행 1005-901-708982 언약교회

신한은행 100-032-008667 언약교회

이번 한주간 동안도 다들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